

5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査報告書
(조선고대 관측 기록 조사 보고서)

1917년 7월 조선 총독부 관측소에서 발행
한 이 보고서는 당시의 관측소장이었던
和田雄次(와타 유지) 박사 연구의 결과
물이다 총 200 쪽으로 된 이 보고서는
和田 박사가 관측소장으로 있을 때 조사
된 것과 和田 박사 퇴임 후 이 방면 조사
를 계속 받아 이룩한 성과 즉 <古代觀測

調査補遺(고대과측조사보유)와 <最近

百四十年間 京城雨量(최근 140년간 경성

우량)>과 <朝鮮에 있어서의 霧(매)(황사)>

에 대하여>와 関口(세끼구찌)鯉吉의 사의

<朝鮮古記録中の 慧星(조선고기록 중의 혜성)과

流星(유성)>에 관한 보고서를 합친 것이다

이 보고서는 和田 박사가 당시 우리나라의

모든 古記録(고기록)을 수집하여 능취한

것인데 세종 24년에 제작한 우리 測雨量

(측우기)가 세계 최초의 측우기란 것을

높이 평가 하고 있다. 시량이 1639년의
우량관측을 시작하기 보다 200년이 앞
섰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.

이 보고서가 비록 복사본이기는 하
지만 우리 국문과 관련한 기본 사항^{의 기록}이
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다.

和田의사는 <風雲記(풍운기)>, <天變抄
長曆錄(천변초출등록)>, <承政院日記(승정
원일기)>와 <日省錄(일성록)>에서 서울의 최근
140년간의 우량(雨量) 통계를 작성하기 전

했다

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는 지진이 많은
 나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
 따르면 三國(삼국) 시대 부터 현대 이
 약 200년간 지진 횟수는 1661회에 달하고
 있다 이 가운데 지진이 일어 지거나 사
 상자가 발생한 정도 즉 강진(強震) 횟수
 를 보면 三國(삼국) 시대 992번에
 11회 있었으며 고려 시대는 456번에 4회
 조선 시대는 519번에 26회 있었다

16

지금 서울에는 耐震設計 (내진설계) 가
 되어 있는 건물은 필자가 알기로는 삼
 목 (삼성) 본사를 비롯하여 몇 손가락을
 꼽을지도 어려운 수준이다 만약 앞으로
 우리나라에 마구베추드 6 정도의 지진이
 온다면 아파르는 물론 대부분의 고층
 건물이 무사할 수 없으리라 생각 한다
 북한이면 시가지는 황砂 (황사) 현상은
 흔히들 최근에 비롯된 자연 현상으로 알
 고 있다 그러나 이 비교하여 따지면

16

BC 34년 부터 근 2000년간 우리나라에는
250여 회의 漢砂(황사) 현상이 기록되어
있다고 적고 있다

和田(와타) 박사는 황사 현상의 고증으로
<三國史記(삼국사기)>, <文獻備考(문헌비교)>, <高
麗史(고려사)>, <朝鮮王朝實錄(조선왕조실록)>
과 <天寶抄卷錄(천배초출록)> 등을 인용했
고 기록하고 있다

또한 이 번고 시는 경주 <陵墓誌> 기능에 대한
여러 가지 견해를 기록하고 있다.